Journal of Political Criticism 7 (2010. 11) 101-123.

논 문

고려와 거란의 영토분쟁과 그 의미

박종기(국민대)

〈 **국문초록** 〉

고려는 보주성 이외 지역으로 거란의 추가적인 진출을 저지하는 수세적 방어 전략의 차원에서 대응했다. 무력충돌과 같은 공세 전략은 새로운 분쟁지를 만들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수세적 방어 전략은 분쟁지를 보주성에 국한시켜 영토문제를 해결하려는 제한적, 집중적인 전략과 관련이 있다. 고려정부가 점령지에 대한 선제공격을 시종 억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영토분쟁 문제가 장기화 한 것은 이러한 전략의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고려는 당시 고려-송-거란-여진의 다원적인 국제질서 속에서 상대국의 내, 외부 정세를 철저하게 분석, 활용하면서 영토문제에 접근했다. 거란의 불안한 내부정세를 이용하거나 때로는 송나라의 새로운 외교전략을 이용하여 영토분쟁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고려는 명분과 이념보다는 실리를 중시했다. 983년 거란의 1차 침략 때 거란의 요구에 응하여 선진문화 수용의 젖줄과 같은 송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는 대신, 압록강 이동 280리 지역을 획득하는 영토의 실리를 얻었다. 이같이 고려는 영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관계에서 명분을 잃더라도 국가적 실리를 택하는, 일종의 등거리 실리외교 전략을 시종 구사했다. 이같이 고려는 국익을 위해 적을 동지로, 동지를 적으로 둔갑시키는 현란한 외교전술로 영토 획득의 실리를 추구했던 점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주제어: 고려, 거란, 보주, 송나라, 실리외교, 금나라, 영토분쟁

Ⅰ. 머리말

高麗王朝(918-1392년) 건국 당시 한반도에는 고려－후백제－통일신라가, 한반도 바깥 중국대륙과 만주지역에는 5대(907-959년) 10국－거란(694-926년)－발해(699-926년)가 각각 각축을 벌이고 있었다. 927년 발해가 멸망하고, 936년 고려가 한반도를 통일하고, 960년 宋나라(960-1279년)가 건국되면서 동아시아 세계는 고려－거란－송을 중심으로 다시 세력재편이 이루어졌다. 한편 발해의 遺民들은 다시 국가를 일으키려는 운동을 펼치고 있었고, 여진족 역시 국가 건국을 모색하면서 당시 동아시아 질서에 일정한 파장을 던져주고 있었다. 이같이 당시 동아시아 세계는 마치 오늘날과 흡사한 다원적 국제질서를 형성하고 있었다.

당시 동아시아 세계질서를 가장 위협하는 문제이자 현안은 領土紛爭이었다. 송나라는 건국직후 지금의 북경 이북의 만리장성 일대에서 요동지역에 있던 燕州 雲州 등 16주 지역의 반환을 거란에 요구했다. 송나라 건국 전 後周의 영토를 거란이 점령한 것이다. 또한 거란은 고려와 1차 전쟁 때(993년) 허용한 압록강 이동 280리 지역의 반환을 고려에 요구했으며, 이로 인해 고려와 거란은 1010년(현종1)부터 1019년까지 다시 전쟁을 치른다. 이같이 약 백년 간 지속된 거란－송, 거란－고려 간의 영토분쟁은 동아시아 세계를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했다.

당시 영토분쟁은 마치 오늘날 중국과 일본 간의 釣魚島(尖閣列島), 한국과 일본 간의 獨島 문제와 유사한 사례이다. 참고로 당시 고려와 거란 간의 영토분쟁은 1014년(현종5) 압록강 이동의 고려 영토에 거란이 保州(혹은 抱州;지금의 義州)를 점령하고 그 일대에 군사시설을 증강하면서 시작되어, 1117년(예종12) 고려가 이 지역을 획득할 때까지 약 백년간 지속되었다. 이 글은 당시 고려와 거란 간의 영토분쟁 문제를 정리하면서, 그 의미를 정리하고

자 한다.

1. 영토 분쟁의 시작

993년(성종12) 10월 고려와 거란 간의 1차 전쟁 후 和約에 따라 고려는 송과의 외교관계를 끊고 거란과 외교관계를 재개하는 대신, 거란으로 가는 길목인 압록강 이동 280리 지역의 영유권을 얻는다. 이곳은 원래 여진족이 점거하고 있었다. 고려는 994년 2월 거란의 연호를 사용하면서 두 나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6월 송나라와의 외교관계를 끊는다. 또한 이해 9월에서 10월에 걸쳐 여진족을 몰아내고 이곳의 요새지에 6성, 즉 江東 6주(興化鎭, 龍州, 鐵州, 通州, 郭州, 龜州)를 설치한다. 이로써 압록강 일대가 처음으로 한반도 영토로 편입된다.[1)]

거란이 고려에게 압록강 이동 지역의 영유권을 인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정 때문이다. 송나라는 건국 직후 거란이 점령한 燕州 雲州 등 16주 지역의 반환을 요구했다. 이를 거부한 거란은 장차 송과의 전쟁에 대비해 고려와 송의 군사 외교적 연합을 막기 위한, 이른바 '後顧의 患'을 없애려는 전략에서 고려에 압록강 이동지역의 영유권을 허락한 것이다.

1005년 송과의 전쟁에 승리, 송으로부터 매년 막대한 歲幣를 얻게 된 거란은 다시 1010년(현종1) 11월 康兆가 정변을 일으켜 穆宗을 시해하고 현종을 즉위시킨 사실을 빌미로 고려에 침입했다. 개경이 함락되었고 국왕은 공주와 나주로 피난을 갔다. 결국 국왕이 거란에 親朝하겠다는 조건

1) 이하 본문에서 언급되는 역사적 사실들은『高麗史』世家 및『高麗史節要』의 해당 年月日조 기사에 근거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논지 전개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구체적인 전거는 생략하고 인용하지 않기로 한다. 한편 거란(契丹)의 또 다른 국호는 요(遼)이다. 두 국호가 시기에 따라 번갈아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편의상 거란(契丹)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으로 거란은 철군을 하다, 고려군에게 대패한다. 국왕의 친조가 실현되지 않자, 거란은 1011년 6월 고려에 영유권을 넘겨준 압록강 이동지역의 강동 6주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다시 고려에 침입한다. 이 전쟁은 1019년(현종10) 강감찬의 귀주대첩으로 거란이 참패할 때까지 계속된다. 1019년 이후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은 끝났으나, 새로운 형태의 전쟁, 즉 영토분쟁은 이후에도 계속된다.

두 나라 사이의 영토분쟁은 전쟁 중인 1014년(현종5) 6월[2] 거란이 浮橋를 설치하고 압록강 이동지역의 고려영토로 넘어와 保州(지금의 義州)를 점령하면서 시작된다.[3] 참고로 『高麗史』 기록에 따르면 이듬해 정월 거란이 압록강에 부교를 설치하여 東西의 두성, 즉 保州와 定州城를 축성하자, 고려가 군사를 보내 이곳을 공격했으나 실패했다고 했다.[4] 그러나 『遼

2) 참고로 김순자 교수는 『遼史』 권115 列傳45 二國外記 高麗조의 기록에 따라 1014년 5월에 거란이 保州를 점령했다고 한다("10-11세기 고려와 요의 영토정책", 『북방사논총』 11호[2006], 257).

3) (1) 『遼史』 권15 本紀 聖宗 開泰 3년(*1014) 6월
是夏 詔國舅祥穩蕭敵烈 東京留守耶律圖石等 討高麗 造浮梁于鴨綠江 城保宣義定遠等州
(2) 『遼史』 권38 地理志2 保州宣義軍조
聖宗 以高麗王詢擅立 問罪不服 開泰三年(*1014) 取其保定二州 統和(*983-1011년)末 高麗降 於此地 榷場
먼저, 거란의 保州 점령시기에 대해 위 사료 (2)는 1014년(현종3)이라 했으나, 위 사료 1)은 1014년 6월(여름)이라 했다. 사료 (1)이 더 정확하다. 그런데 『遼史』 권115 列傳45 二國外記 高麗조에는 사료 (1)과 같은 記事를 싣고, 그 시기를 5월이라 했다. 여기서는 사료 (1)의 本紀 기록에 따르기로 한다.
다음, 위 사료 (1)에서 '城保宣義定遠等州'라 하여 保州 宣義州 定遠州 등 3개 주에 성을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宣義州는 '保州宣義軍'과 같이 保州의 군사 단위 명칭으로, 保州와 같은 지역이다. 따라서 거란이 압록강 이동의 고려영토에 설치한 성은 사료 (2)와 같이 保州와 定州 2개성이다. 또한 사료 (2)와 같이 거란은 이곳을 점령한 명분을 統和 年間 末(1011년으로 추정), 즉 거란의 2차 침략 때 고려가 항복했기 때문이라 했다. 거란은 이 해 이미 이곳에 각장을 설치했고, 1014년에는 다시 성을 설치하고 거란의 영토로 삼았다고 했다.

史』의 기록(앞의 각주 2) 참고)으로 미루어 보아 두 성은 이미 그 전해 여름(6월)에 축성되었고, 이듬해 정월 고려가 두 성을 공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5] 이로써 1117년(예종12) 고려가 이 지역을 되찾을 때까지, 무려 백여 년간 두 나라는 이른바 '鴨綠江以東' 문제(혹은 '鴨江以東' 문제)를 둘러싸고 길고도 지루한 영토분쟁을 겪게 된다.

거란은 왜 압록강 이동의 고려영토를 점령하여 保州城을 설치했을까? 거란은 이미 1010년부터 강동 6주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고려에 침략했으나, 고려 군사에게 대패하면서 현실적으로 강동 6주성을 점령할 수 없었다. 거란은 장차 강동 6주지역을 획득하기 위한 전략적 목적에서 우선 고려 영토인 압록강 이동의 保州지역을 점령하여 이곳을 근거지로 고려를 압박하려 했던 것이다. 이는 거란이 강동 6주지역의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거란은 송나라와 전쟁을 벌여 두 나라 접경지대인 연주와 운주 등 16주지역을 1005년 확보하자, 다시 고려와 접경지대인 강동 6주를 확보하려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강동 6주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무엇일까? 이 지역은 적에게 점령당하면 제 2수도 西京은 물론 수도 開京까지 쉽게 위협을 받는 전략의 요충지이자 요새지이다. 또한 거란이 지금의 함경도 지역인 東北방면의 여진족을 제압하기 위한 진출로이자 그곳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한편 경제적으로 강동 6주를 둘러싼 압록강 하류 지역은 여진・송・거란과 고

---

4) 『高麗史』 권4 顯宗 6년 1월
春正月 契丹作橋於鴨綠江夾橋 築東西城 遣將攻破 不克
위에서 거란이 축성한 성을 東, 西城이라 했으나, 『高麗史』 권6 靖宗 1년 6월조에서는 宣, 定 兩城이라 했다. 定城은 定州이며, 宣城은 宣義州, 즉 保州일 것이다.

5) 또한 각주 2)에서 검토한 대로 거란은 1011년 무렵 거란은 이곳에 각장을 설치했으며, 1014년 여름(6월)에 이미 축성을 완료했다. 따라서 『高麗史』의 기록(각주 3)의 기록)은 1014년 이미 거란이 축성한 사실과, 1015년 정월 고려가 이곳을 공격한 사실을 함께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려 간 동북아 지역 교역의 중심지이다. 송은 이 지역에서의 교역을 통해 말·무기·모피 등 전략물자를 획득했다. 이러한 물자는 여진과 거란에서 주로 생산되는데, 송은 고려나 여진과의 간접교역으로 그러한 물자를 조달했다. 한편 거란은 식량·모직·종이 등 부족한 각종 생필품을 고려나 여진을 통해 구입했다. 이처럼 압록강 일대는 동아시아의 주요한 교역 중심지였다.[6)]

고려와 거란은 이같이 두 나라의 접경지대인 강동 6주지역의 전략적 경제적 가치를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 거란은 송나라와의 전쟁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 지역의 영유권을 고려에 넘겨주었지만, 전쟁에 승리하자 이 지역의 반환을 본격적으로 요구했다. 거란은 전쟁을 통해 송과의 영토분쟁은 해결했지만, 1010년(현종1)에서 1019년까지 고려와의 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송과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지만, 이 지역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그 대안으로 保州를 선제적으로 점령하여 고려를 압박하는 전략이었다. 保州 점령을 계기로 두 나라는 약 1세기 간 지루한 영토분쟁에 휩싸이게 된다. 특히 거란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군사시설의 증강, 榷場(貿易場)의 개설, 地界劃定과 같은 영토 경계의 재조정 요구 등 여러 형태의 분쟁을 일으키면서 고려를 압박했다. 이에 대한 고려의 대응책을 중심으로 당시의 영토 분쟁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6) 박종기, "고려시대의 대외관계",『한국사』6권(서울: 한길사, 1994); 박종기,『새로 쓴 5백년 고려사』(서울: 푸른역사, 2008).

2. 영토분쟁에 대한 고려의 대응 방식

(1) 1차 분쟁; 거란의 내부정세를 이용한 先制的인 영토정책

1019년(현종10) 강감찬의 귀주대첩으로 거란과의 전쟁은 끝났으나, 고려는 자국의 안정을 위해 거란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거란을 견제하기 위해 1014년 재개한 송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한다. 그 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1022년 4월 고려가 거란 연호를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 무렵 이후 송나라와의 공식적인 외교관계는 단절된다.[7] 또한 고려는 1020년 거란과 외교관계를 재개한다.

그러나 두 나라 사이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문제가 있었다. 하나는 1010년(현종1) 거란의 2차 침입 때 화친을 위해 파견되었다 억류된 고려사신 이예균(李禮均) 왕동영(王同穎) 등의 귀환문제[8]이다. 다른 하나는 고려 영내인 압록강 동쪽에 설치한 거란성의 철거 문제였다. 외교관계는 재개되었으나, 이 문제는 전혀 진전이 없었던 것이다. 특히 거란성 철거문제는 국익이 걸린 문제로 양보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9]

1029년(현종20) 8월 발해 후손 大延琳이 거란에 반란을 일으켜 興遼國을 건설한다. 그는 같은 해 9월과 12월, 이듬해 1월과 7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거란을 공격하기 위해 고려에 군사를 요청했으나, 고려는 응하지

---

7) 다른 기록에 따르면 1031년 이후 1070년까지 양국의 외교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한다(장동익, 『高麗時代 對外關係史 綜合年表』[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9], 67).

8) 『高麗史』 권4 顯宗 원년 冬10월. 고려 정부는 이들에 대해 여러 조치를 취했다. 같은 왕 5년 6월 억류된 사신의 관직을 승진시켰고, 같은 왕 11년 2월 가족들에게 곡식, 관작과 관직을 내렸다. 거란에 보낸 첩문에는 6명이라 했으나, 실제로 이예균 왕동영 외에 陳頠, 尹餘, 王佐暹, 金德華, 金徵祜, 金得宏 등 모두 8명이다.

9)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1031년 고려는 거란에 사신을 파견하여 위의 두 가지 문제의 해결을 요청한다. 그런데 1039년 두 나라가 이에 대해 타협을 하는데, 억류된 사신의 귀환문제는 언급되지 않는다. 아마도 억류된 지 30여 년이 지나 이들이 이미 사망했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않았다. 대연림의 반란 등으로 인해 길이 막혀 거란과의 관계도 1029년 중단된다. 또한 거란의 어수선한 정세를 이용하여 고려는 1029년 9월 郭元의 주장으로 고려는 압록강 이동지역의 거란성을 공격했으나 실패한다. 1030년 8월 대연림의 반란은 진압된다.

1031년(덕종 즉위년) 고려 침략 당시의 국왕인 거란 聖宗이 죽고, 부마 匹梯가 반란을 일으키는 등 거란의 내부정세가 매우 불안했다. 고려는 이해 10월 성종의 장례식과 興宗의 즉위식에 사신을 보내면서, 현안문제인 억류된 사신의 귀환과 압록강에 축성된 거란성의 철거를 요구했다. 11월 거란은 고려의 요구를 거부한다. 고래 내부에서는 거란성 공격을 주장한 논의도 있었지만, 新王 흥종 대신 죽은 성종의 연호만 사용하고, 거란에 사신 파견을 중단했다. 1032년(덕종1) 정월 거란 사신의 입국을 거부하는 외교적 시위와 함께 삭주 · 영인진 · 파천현 등지에 石城을 쌓아 사신의 왕래를 막는 무력시위를 했다. 또한 거란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1033년부터 지금의 압록강 하구에서 함경도 안변의 도련포에 이르는 千里長城을 축조하기 시작했다(1044년 완성).

고려의 조치는 매우 주목된다. 연호 사용의 중단과 사신의 입국 거부는 新王 흥종의 즉위를 인정하지 않는, 당시 동아시아 외교의 국제관례인 조공－책봉 관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이같이 고려는 거란의 불안한 내부정세를 파악하고, 군사와 외교조치를 통해 거란에 압박을 가하여 영토문제를 해결하려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거란은 1035년(정종1) 5월 고려에 사신을 보내, 興遼國의 반란이 진압되고 신왕(*흥종)이 즉위했는데도 고려가 여러 해 거란에 朝會하지 않고 도리어 성을 쌓아 사신의 통행을 차단한 사실을 질책했다. 같은 해 6월 거란에 대해 고려는 石城을 쌓은 것은 국토를 지키고 변방 백성의 안전을 위한 것이며, 억류된 사신의 귀환과 우리 영토에 쌓은 거란성 철거를 요구

했다. 한편 고려는 유리한 국면전환을 위해 1036년 7월 송과의 외교관계를 재개하기 위해 사신을 파견했으나 풍랑으로 실패했다. 1037년 9월 거란이 다시 고려에 통교를 요구하자, 이해 12월 고려는 거란에 通交의사를 전한다. 1038년 8월 고려가 신왕 흥종의 연호를 사용하기로 하면서, 양국은 8년 만에 관계가 정상화 된다. 이를 계기로 1039년(정종5) 2월 고려는 사신 庾先을 보내 다시 거란성 철거를 요구했고, 이해 4월 귀국하는 사신편에 거란은 回信을 보낸다.

이에 따르면 고려는 압록강 동쪽 성벽 때문에 농업에 방해가 된다고 하나, 그 성은 이미 선왕(*거란 성종) 때 변경을 방어하기 위해 설치되어 철수는 어렵다. 고려의 전왕(*덕종)은 이 문제로 조공을 끊었다. 그러나 이제 新王(*고려 정종)이 거란에 왔으니, 우리의 뜻을 따르고 대신 고려의 백성들은 압록강 성벽 주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했다.[10]

결국 거란의 回信은 양국이 保州성 문제에 대해 타협한 내용을 담은 것이다. 고려는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을 드러낸 사실이 없는데서도 확인된다. 결국 고려는 압록강 이동의 자국 영토에 설치한 거란성의 존재는 양해를 하고, 거란은 그 일대 고려 주민의 경작을 허용하겠다는 타협책으로 1차 영토분쟁은 일단 마무리된다. 고려는 거란성 철거를 관철시킬 수 없었지만, 주변지역으로 축성과 군사시설 설치 등 거란의 추가적인 군사행위를 저지하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1차 영토분쟁 과정에서 고려의 정책은 주도면밀했으며 주목되는 점이 적지 않았다. 고려는 거란의 혼란한 내부정세를 꿰뚫고 그 틈을 이용하여,

---

10) 『高麗史』 권6 靖宗 5년 4월
夏四月 辛酉 朔庾先還自契丹詔曰 省所告鴨江東城壁 似妨耕鑿事具悉 乃睠聯城置從先廟 盖邊隅之常備 在疆土以何傷 朕務守成規 時難改作 先臣欽曾煩告奏 致阻傾輸 卿襲爵云 初貢章纔至所欲 當遵於曩舊 乃誠更勵於恭勤 卽是永圖 兼符至意 厥惟墾殖勿慮驚騷

거란에게 압록강 이동지역의 거란성 철거를 요구하는 등 기민한 외교전술을 구사했다. 요구가 거부되자, 고려는 거란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양국 사신 왕래의 길목을 막고 군사시설을 증강하는 무력시위를 했다. 거란성 철거에 실패했지만, 고려는 군사 외교적인 선제공세로 거란의 추가적인 영토침해 행위를 저지하는데 성공했다. 두 나라 사이의 영토분쟁이 다시 쟁점이 된 것은 문종 때이다.

(2) 2차 분쟁; 거란의 군사시설 증강과 대송외교 재개

1054년(문종 8) 7월 거란은 保州城 東野에 군사시설인 弓口門欄을 설치했다. 이듬해 7월 고려는 거란의 불법행위를 지적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 때 거란에 보낸 문서에 따르면, 거란은 弓口門欄 뿐만 아니라 이때 城橋와 郵亭(*驛)까지 설치했다. 이는 保州城 이동지역으로 군사시설을 확장하여 주민을 놀라게 하고 고려 영토를 잠식하는 명백한 영토침범행위라 했다.[11] 거란은 이를 묵살하고 다시 고려 영토인 松嶺 東北지역[12]으로 墾田을 확장하고 庵子를 설치하고 사람과 가축을 늘리는 영토침해행위를 확대시켰다. 고려는 문종 10년(1056)에도 이의 중지를 요구했다. 그러한 사실은 1057년(문종11) 4월 국왕은 거란에 사신을 파견하여 그러한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할 것을 지시한 사실에서 확인된다.[13]

---

11) 『高麗史』 권7 문종 9년 7월조
丁巳朔 都兵馬使奏 契丹前太后皇帝 詔賜鴨江以東 爲我國封境 然或置城橋 或置弓口欄子 漸踰舊限 是謂不厭 (中略) 今又創立郵亭 蠶食我疆於是 致書東京留守曰 當國 襲箕子之國 以鴨江爲疆 (中略) 又被近日來遠城軍夫 逼邇我城 移設弓口門 又欲創亭舍 材石旣峙 邊民騷駭 未知何意

12) 松嶺을 현재 義州군 금광리 금광산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송령은 당시 保州성 일대지역으로 판단된다(장동익, 『高麗時代 對外關係史 綜合年表』[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9], 69).

13) 『高麗史』 권8 문종 11년 4월조

고려는 거란에 영토 침해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으로 국면 타개를 위해 1058년(문종12) 8월 송과의 외교를 재개하기로 하고, 耽羅와 靈岩의 목재로 大船을 제작하려 했다. 그러나 大船 제작에 따른 民力의 낭비, 거란과의 불편한 관계 발생, 송과의 관계회복이 당장에 고려에 實益이 없다는 신하들의 반대로 송과의 통교는 보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란은 1062년(문종16) 고려 保州城 남쪽에 賣買院(*貿易場)을 설치하여 무역을 요구하고, 1074년(문종28) 거란은 다시 군사시설인 探戍庵을 定戎城 북쪽에 설치하는 등의 영토침해를 계속하면서 고려를 자극했다.[14] 또한 그 전해인 1073년(문종27) 保州城 주변에 농사를 지어 추수를 기다리는데, 거란의 人馬가 쳐들어와 이를 짓밟았다.[15]

결국 고려는 1071년(문종25) 3월 50년 만에 송나라에 사신을 파견하면서, 두 나라의 관계를 회복하였다. 이는 결국 거란의 영토 침해행위에 대한 외교적 시위이자 장차 있을지 모를 전쟁에 두 나라가 연합하여 거란에 대응하겠다는 무언의 압박행위였다.

壬戌 制曰 去年遣使 請罷弓口門外郵亭 時未撤毁 又於松嶺東北 漸加懇田 或置庵子 屯畜人物 是必將侵我疆也 當亟請罷之

14)『高麗史』 권10 선종 5년 9월조
遣太僕少卿金先錫 如遼 乞罷榷場 表曰 (中略) 若聖宗之勑墨未乾 太后之慈言如昨 甲寅年 造浮梁而通路 乙卯年 城越境以置軍 乙未年 設弓口而創亭 丙申年 允窩頭以毁舍 詔曰自餘瑣事 俾守恒規 又壬寅年 設買賣院於宣義軍南 論申則葺營役罷 甲寅年 排探戍菴於定戎城北 이 기록에 따르면 1014년 이래 거란의 영토 침해행위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군사시설인 궁구문란을 설치한 시기를 1055년으로 기록하고 있고, 이듬해 郵亭은 철거되었다고 하여 본문에서 인용한 『高麗史』 기록과 다르다. 여기에서는 『高麗史』 기록을 따르기로 한다. 한편 같은 내용이 『東文選』 권48 "入遼乞罷榷場狀"(朴寅亮 撰)에 실려 있다. 따라서 『東文選』의 이 기록은 선종 5년(1088)에 작성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거란이 압록강에 浮橋를 설치한 甲寅年(1014)을 丙申年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는 『東文選』의 착오이다.

15)『東文選』 권39 "上大遼皇帝告奏表"(朴寅亮 撰)

고려는 당시 송나라의 새로운 외교정책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취할 수 있었다. 송나라는 1004년 거란과의 영토전쟁에 패하여 이른바 전연(澶淵*현재의 중국 하남성 僕陽縣)의 盟約에 의해 매년 막대한 歲幣를 거란에 제공했으며, 다시 1042년 거란의 추가 요구에 굴복하여 매년 거란에 대해 銀 10만 냥 絹 10만 필을 더 바쳐야 하는 외교적인 恥辱을 당했다. 神宗(1068-1085년 재위) 때 新法黨이 집권하면서 거란을 제압하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거란의 배후에 있는 고려와 연합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聯麗制遼'론의 외교방책을 수립한다.[16] 송나라는 고려와 거란 간의 영토분쟁 무렵인 1068년(문종22) 고려에 송 황제의 通交의사를 전하였고, 마침내 1071년(문종25) 50년 간 중단된 외교관계를 재개한다.

송나라의 '聯麗制遼'책에 대응하여, 거란은 고려와 송의 결합을 저지하여 영토분쟁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대외정책을 구사했다. 반면에 고려는 두 나라의 대립관계를 적절하게 이용하였다. 영토분쟁에서 고려가 거란에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은 것은 2차 분쟁에서 적절한 외교정책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영토분쟁에서 유리한 국면을 얻기 위해 고려는 송과의 관계를 단절 또는 재개하는 등의 다양한 외교전략을 구사했다. 이러한 전략은 상대국의 정보를 꿰뚫고 대응하는 치밀한 대외정보력에 의존하였음은 물론이다. 영토적인 실리를 확보하려는 국가목표를 위해 국가 간의 명분과 체면은 언제든 버릴 수 있다는 고려의 외교전략은 오늘날의 이른바 '等距離 實利外交' 노선과 흡사하다.

16) 陶晉生, "宋高麗與遼 三角外交關係", 『宋遼關係史研究』(臺北: 聯經出版事業公社, 1984).

(3) 3차 분쟁; 榷場(무역장) 설치 요구와 새로운 정세변화

1071년 고려와 송이 외교관계를 맺자, 거란은 두 나라를 견제하고 나아가 영토분쟁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영토의 경계를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이른바 '地界劃定'을 두 나라에 각각 要求했다.

먼저 거란은 1072년 兵馬를 송의 국경으로 넘어 들어가게 하여 소요를 일으켜 군사적인 긴장관계를 조성하고, 이를 계기로 송에 대해 영토의 境界를 재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양국은 이 문제를 1074년에 마무리 짓는다. 거란의 이같은 정책은 송의 경우에는 성공한 듯이 보인다. 송나라가 고려와 관계 회복 후 약 7-8년이 경과한 1078년(문종28)에야 고려에 공식 사행을 파견한 것은 이 때문이다.[17]

송과 地界問題를 매듭지은 거란은 1074년(문종28) 다시 압록강 동쪽 定戎城 북쪽에 군사시설 探守庵을 설치하여, 고려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거란은 이듬해 7월 고려에 압록강 이동지역의 국경을 재조정하자는 地界劃定을 요구했다. 송에 요구했던 문제를 고려에도 요구한 것이다. 고려는 柳洪과 李唐鑑을 보내 거란과 地分을 審定하는 논의를 했으나, 이 문제를 타결하지 못했다. 고려는 1076년(문종30) 8월 거란에 사신을 보내 거란이 1074년에 설치한 定戎鎭 關外의 庵子를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1078년 4월 고려는 사신을 거란에 파견하여 압록강 이동지역의 반환을 요구했다.[18] 이같이 고려는 압록강 이동지역에 대한 군사시설 增置와 地界劃定을 요구한 거란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했다.

반면에 고려는 송과의 교류를 확대했다. 1071년 고려가 송나라에 50년만에 사신을 파견하였지만, 거란이 지계획정을 요구한 1075년부터 2년 간

---

17) 주 16)의 논문을 참고할 것.

18)『遼史』권115 高麗傳;『東文選』권39 "上大遼皇帝告奏表"(朴寅亮 撰).

사신을 파견하지 않았다. 송나라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는 거란의 또 다른 압박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송나라가 공식사행을 고려에 파견한 1078년 이후 두 나라는 유례가 없을 정도의 활발하게 교류하였다.[19] 이는 地界劃定을 요구한 거란에 대해 두 나라가 공동으로 견제하려는 외교적 방책과도 무관하지 않다.

지계획정에 실패한 거란은 고려에 새로운 압력수단으로 고려 영토 내에 각장(榷場;*무역장) 설치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 요구는 고려 초기부터 거란이 꾸준하게 고려에 요청해 왔던 사안이었다. 최초의 각장은 1005년(목종8)에 압록강 연안의 保州에 설치되었으나, 1010년(현종1) 2차 거란과의 전쟁으로 폐지되었다. 이후에도 거란은 1014년(현종5) 보주를 점령하고, 그곳에 각장을 설치했다. 또한 1062년(문종16) 고려 保州城 남쪽에 賣買院(*貿易場)을 설치하여 무역을 요구했다.

거란은 각장을 통해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는 한편, 고려의 동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효과까지 노렸던 것이다. 고려의 경우 각장이 설치되면 거란이 개입하여 여진과의 互市를 통한 고려의 독점적 이득을 잃을 뿐 아니라 군사 요충지인 압록강 일대의 각장 설치는 뒷날 거란과 새로운 영토 분쟁거리가 될 수 있어, 쉽사리 허용할 수 없었다.[20]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각장이 대부분 영토분쟁지역인 保州지역에 설치되었다. 이는 거란이 각장을 설치한 의도가 단순히 무역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19) 1071년 고려가 사신을 파견하자, 송나라는 고려 사신단에 대한 禮遇를 높여 夏國과 동등하게 했다. 1078년 송나라는 고려 사신단을 맞이하는 州郡은 그 禮遇를 거란의 사신단과 동등하게 하도록 했다(장동익, 『高麗時代 對外關係史 綜合年表』[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9], 해당 年度사실 참고).

20) 이상은 李龍範 교수의 논지를 정리한 것이다("麗丹貿易考", 『東國史學』3 동국대[1955]). 그 외 필자가 참고한 각장 관련 논문은 다음과 같다. 이정희, "고려전기 對遼貿易", 『지역과 역사』4(1997). 이미지, "高麗 宣宗代 榷場문제와 對遼關係", 『韓國史學報』14(2003).

는 것이 아니라, 영토의 점령 혹은 점령된 영토를 확보하고 유지하려는 전략적 목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구체적으로 그런 사실은 1078년 이후 고려와 송나라의 관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자, 거란은 宣宗代에 다시 각장 설치를 고려에 요구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086년(선종3) 5월 고려는 告奏使 韓瑩을 보내어 각장 설치를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로 미루어 보아, 기록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宣宗대 들어와 거란은 영토분쟁을 일으킬 명분으로 여러 차례 각장 설치를 요구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이후에도 고려는 여러 차례 사신을 파견하여 반대의사를 전한 사실[21]에서 짐작할 수 있다.

거란은 각장 설치를 요구하면서 새로운 영토분쟁을 일으킨 것이다. 1088년(선종5) 2월 거란이 압록강 연안에 각장을 설치하려 하자, 고려는 中樞院副使 李顔을 藏經燒香使로 가장하여 龜州에 가서 邊事를 몰래 준비하게 했다. 각장 설치를 강행할 경우 무력충돌까지 염두에 둘 정도로 고려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겼다. 이해 9월 고려는 金先錫을 거란에 보내, 각장 설치는 영토침해 행위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거란은 이 해 11월 김선석이 귀국하는 길에 보낸 답서에서 각장 설치는 논의 중에 있으며, 아직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의심하지 말라고 했다. 거란측의 답변은 고려에 설치한 각장을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뜻이다. 이로써 각장 문제는 마무리된다.[22] 그러나 기록과 같이 고려의 요구에 거란

21) 고려는 이듬해인 선종 4년(1087) 정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告奏使 林昌槪과 密進使 金漢忠을, 역시 같은 해 10월에 告奏使 柳伸을 거란에 파견하였다. 고주사 밀진사의 명칭을 띤 使行은 단순한 의례적인 사행이 아니라, 당시 관례로 보아, 대체로 주요한 현안 문제 때문에 파견되는 사행이다. 따라서 이때의 사행은 각장 설치를 둘러싼 고려 측의 의사를 전달하러간 사행으로 판단된다. 이는 1089년 9월 金先錫이 거란에 올린 각장 혁파의 表文에서 그간 고려에서 3번이나 거란에 사신을 파견하였다는 사실이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 쉽사리 그것을 철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철회 조건으로 두 나라 사이에 타협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타협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그 이후 두드러진 변화는 두 나라 사이에 이전과 같은 심각한 외교적인 마찰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각장 철회 이후 15년이 지난 1101년(숙종6) 8월 고려가 靜州 관내에 軍營을 새로 설치하자, 거란이 철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고려는 太安年間(1085-1094년:선종2-10년) 거란이 고려의 요구에 따라 각장 등을 철회했으니,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면서 스스로 군영을 철거했다. 1088년(선종5) 각장 철회 이후 두 나라 사이에 우호관계가 지속되었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관계는 고려가 保州를 획득한 1117년(예종12)까지 유지된다.

각장 철회조건으로 고려는 다시 친 거란 정책으로 선회했다. 참고로 선종과 그 뒤를 이은 숙종 두 국왕의 21년 재위기간 중 고려와 송과의 사신 왕래 회수는 모두 10회인데 반해, 거란과의 경우 모두 104회나 된다. 연평균 사행회수는 송의 경우 약 0.5회(10회/21년), 거란의 경우 약 5회(104회/21년)나 된다. 이는 문종 때(36년 재위) 거란과의 전체 사행 회수(97회, 연평균 2.7회)보다 선종과 숙종 때(104회, 연평균 4.95회)가 훨씬 많다.[23] 결국 고려는 송보다는 거란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는, 대거란 우위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각장문제를 타협하였다.

---

22) 그러나 거란에 대한 고려의 의구심은 계속된 듯하다. 1091년(선종8) 국왕은 뒤에 숙종으로 즉위하는 鷄林公 熙를 비롯한 여러 重臣들과 邊事를 의논한 사실에서 알 수 있다.

23) 고려의 선종과 숙종의 재위 기간 송나라는 '聯麗制遼'의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펼친 왕안석을 중심으로 한 新法黨이 쇠퇴하고 다시 蘇東坡 등 舊法黨이 집권하게 되는데, 그들의 의견이 당시『宋史』高麗傳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고려 전기의 역대 국왕 가운데 가장 酷評을 받은 국왕은 선종과 숙종이다. 이는 이들 국왕이 대거란 우위의 대외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위의 사실과 함께 본문에서 고려와 대송 대거란 使行회수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것(박종기, "고려중기 대외정책의 변화",『한국학논총』16 국민대[1994]).

3. 금나라의 건국과 보주 획득

한편 고려와 거란이 각장 문제를 쉽게 타협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고려의 국경 부근에 산재한 여진부족이 점차 세력을 강화하여, 고려를 압박하는 새로운 정세의 변화에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이다. 점차 쇠약해가는 거란과의 불필요한 소모적인 마찰보다는 고려의 안정을 위해 거란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신흥하는 여진족의 동태를 감시하고 장차 그들을 정벌하여 기세를 꺾을 필요가 있었다. 거란 역시 고려와 마찬가지로 여진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 더 절실했다. 이같이 점차 강성해가는 여진족의 등장에 두 나라는 상당한 위기의식을 공유하였으며, 이에 대처하는 일이 두 나라 사이의 영토분쟁보다 더 화급한 일이었다.

고려는 여진족이 점차 강성해지면서 국경 부근에서 고려와 군사적인 충돌이 잦아지자, 여진족을 견제하기 위해 1104년(숙종9), 1107년(예종2) 두 차례 걸쳐 여진 정벌에 나섰다. 고려는 2차 여진 정벌 때 여진지역에 9성을 쌓았으나, 여진이 앞으로 고려와 和好하겠다는 조건으로 1109년 이를 되돌려 주었다. 그러나 여진은 더욱 강성하여, 거란과 고려를 위협했다. 1114년(예종9) 10월 거란은 여진족을 칠 계획을 갖고 있으며, 고려에 대해 함께 여진족을 공격할 것을 제의한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두 나라는 여진족의 동태에 대해 공동의 위기의식을 갖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예가 된다. 이에 따라 고려와 거란 사이의 영토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여진족은 1115년 1월 금나라를 건국하였다. 이해 4월 거란은 고려 사신이 귀국하는 편에 조서를 보내 농번기를 피해 금나라를 공격할 계획을 알리고, 고려에 대해 협공을 제의했다. 이해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거

란은 금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고려에 원병을 요청했으나, 고려 조정은 이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고려는 거란의 원병 요청을 거부했다.

1116년 3월 거란의 내원(來遠) · 파주(把州*抱州 즉 保州)성이 금나라의 공격을 받았다. 이해 4월 그 성의 유민들이 고려로 내투하자, 고려는 거란이 금나라의 침입을 받아 위태로우니 거란의 년호 사용을 중지하기로 결정하는 동시에, 금나라의 아골타가 보낸 사자를 받아들이면서 금나라와의 관계를 정상화 하려는 의지를 드러내었다. 이해 8월 다시 금나라의 공격으로 抱州(*保州)성이 함락하자, 고려는 사신을 금나라에 보내 거란에 대한 승전을 축하하면서 보주성은 고려의 옛 영토이므로 고려에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금나라 국왕 아골타는 고려가 직접 그곳을 공격하여 차지하라고 했다.[24)]

1117년(예종12) 3월 거란은 보주지역이 금나라의 공격을 받아 함락 직전에 이르자 고려에 식량을 요청했으나, 고려는 거부한다. 다시 보주성이 금나라의 공격을 받자, 거란은 고려에게 내원성과 보주성을 고려에 반환하기로 통보했다. 고려는 군사를 동원하여 이곳을 점령하고, 義州라 명칭을 고치고 고려 영토에 편입하였다. 1014년 거란이 압록강 동안의 고려 영토인 보주를 점령한 이후, 이의 반환을 둘러싼 약 백년 간 지속된 고려와 거란 사이의 영토분쟁은 이로써 마무리 되었다.

24) 『金史』 권135 高麗傳에는 이 사실을 1116년 1월이라 했다.

Ⅱ. 맺음말-영토분쟁의 현대적 의미

고려정부가 영토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대응책에서 몇 가지 의미있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지금의 우리들에게 매우 시사적이며, 교훈이 될 만한 점이 적지 않다.

첫째 고려의 대응방식이다. 거란은 압록강 이동 280리 지역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당시 만주와 한반도의 關門인 保州를 점령하고, 이곳을 영토분쟁의 거점으로 삼아 고려를 압박했다. 거란의 압박수단은 다양하였다. 거란은 보주를 중심으로 그 주변지역으로 군사시설을 증강하거나 주민을 이주시켜 농경지를 조성하는 등의 점령지 확대정책을 펼쳤다. 보주와 그 주변지역에 고려-거란-여진족이 서로 교역을 할 수 있는 榷場(*무역장)을 설치하여, 고려의 배타적인 영유권을 약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또한 점령지를 영토화 하기위해 국경을 재조정하는 地界劃定을 요구하기도 했다.

고려는 보주 이외 지역으로 거란의 추가적인 진출을 저지하는 수세적 방어 전략의 차원에서 대응했다. 무력충돌과 같은 공세 전략은 결과적으로 새로운 분쟁지를 만들 우려가 없지 않은 것이다. 수세적 방어 전략은 분쟁지를 보주에 국한시켜 영토문제를 해결하려는 제한적, 집중적인 전략과 관련이 있다. 고려정부가 점령지에 대한 선제공격을 시종 억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영토분쟁 문제가 장기화 한 것은 이러한 전략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이 고려정부는 영토문제를 조급하게 해결하려 하지 않고, 냉정하게 대처했다. 긴 안목의 장기적인 외교 정책과 목표를 고려왕조 지배층은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물론 거란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을 정도의 군사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상대국의 정세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정보력이다. 고려는 당시 고려-송-거란-여진의 다원적인 국제질서 속에서 상대국의 내, 외부 정세

를 철저하게 분석, 활용하면서 영토문제에 접근했다. 1차 분쟁에서 거란의 불안한 내부정세를 이용하여, 신왕의 연호 사용과 사신 입국을 거부하고, 성을 쌓아 사신의 왕래를 중단시키는 군사 외교상의 선제적인 공세를 취했다. 2차 분쟁에서 송나라의 새 외교정책을 파악하고, 송과의 외교관계를 재개하여 우회적으로 거란을 압박하는 외교전략을 구사했다. 3차 분쟁에서 여진족이 신흥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새로운 국제환경의 변화를 읽고, 친 거란 정책으로 선회하여 두 나라 사이의 마찰을 최소화 하면서 여진족의 위협에 대처하는 기민한 전략을 펼쳤다.

셋째, 명분과 이념보다는 실리를 중시했다. 983년 거란의 1차 침략 때 거란의 요구에 응하여 선진문화 수용의 젖줄과 같은 송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는 대신, 압록강 이동 280리 지역을 획득하는 영토의 실리를 얻었다. 고려는 영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관계에서 명분을 잃더라도 국가적 실리를 택하는, 일종의 등거리 실리외교 전략을 시종 구사했다. 이같이 고려는 국익을 위해 적을 동지로, 동지를 적으로 둔갑시키는 현란한 외교전술로 영토 획득의 실리를 추구했던 점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자주와 사대, 명예와 굴욕, 명분과 실리라는 가치 대립의 상황에서 선택의 기준은 언제나 국가의 실리 여부였다.

넷째, 내부적으로는 영토분쟁과 같은 대외정책을 둘러싸고 대거란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 치열한 갈등과 대립이 있었다. 그러나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대외적으로는 하나의 단일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영토문제에 대처하였다.

참고문헌

『高麗史』世家.
『高麗史節要』.
『金史』.
『東文選』.
『宋史』.
『遼史』.
陶晉生. 1984. “宋高麗與遼 三角外交關係”.『宋遼關係史研究』. 臺北: 聯經出版事業公社.
박종기. 1994. “고려시대의 대외관계”.『한국사』6. 서울: 한길사.
_____. 1994. “고려중기 대외정책의 변화”.『한국학논총』16.
_____. 2008.『새로 쓴 5백년 고려사』. 서울: 푸른역사.
이미지. 2003. “高麗 宣宗代 榷場문제와 對遼關係”.『韓國史學報』14.
李龍範. 1955. “麗丹貿易考”.『東國史學』3.
이정희. 1997. “고려전기 對遼貿易”.『지역과 역사』4.
장동익. 2009.『高麗時代 對外關係史 綜合年表』.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Abstract】

Goryeo's Territorial Conflict with the Khithai at the Turn of the 1000s: Facts and Interpretations

Park, Jong-Ki(Kookmin University)

The passive defensive strategy that Goryeo employed in its territorial conflict with Khithai was intended to prevent its conflict from being expanded into the other areas beyond the Boju castle. That strategy was pursued on the belief that an offensive clash might make another disputing area. For this reason it aims at taking hold of territorial conflict by confining the disputing areas. Because of this strategy, Goryeo government steadily followed its course of action, "passive" response, which allows the territorial conflict to remain but does not let it aggravate.

Goryeo's approach to handle territorial problems was very astute, on the basis of its through analysis of international relations. On occasions it tried to resolve them by appropriating the unstable state of Khithai or by outwitting the new international strategy of Sung. Goryeo placed national interest before any ideological justification, as shown in the case, in 983, of gaining some patch of territory from Khithai, in return for breaking down

its diplomatic relation with Sung. On the whole, Goryeo's diplomatic achievements were made possible upon its even-handed and independent diplomacy.

Key Words: Goryeo, Khithai, Boju, Sung, handlig strategy, territorial conflict

접 수 일: 2010년 9월 16일
심 사 일: 2010년 9월 24일
게재 확정일: 2010년 10월 5일